

시형상의 본질적속성

정 두 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가는 오늘의 벽찬 현실은 그대로가 하나의 아름다운 시이고 투쟁의 노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는것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306페이지)

사람들에게 시대의 열정과 아름다움을 주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의 매력은 그 형상에 있다.

시는 형상적으로 써야 한다.

높은 시형상은 생활에 대한 열정, 시대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사색에 기초한 독창적인 발견이다. 다시말하여 심오한 사상을 뜨거운 열정과 풍만한 정서를 가지고 그려낼 때에만 창조될수 있는것이 시의 형상이다.

시문학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시형상의 본질적속성이 나온다.

시형상의 본질적속성은 무엇보다먼저 직선적인것이 아니라 생활적인것이라는데 있다.

예술적형상은 본질에 있어서 생활적인것이다. 그것은 형상이 현실생활에 기초하여 창조된것으로서 생활로 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모든 문학작품은 인간생활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생활로 끝난다. 시작품도 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시에서 사상은 오직 구체적인 생활정서로 노래되어야만 한다.

생활정서를 떠나서 시작품과 그 형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시에서 생활을 노래한다는것은 인간의 생활정서를 구체적으로, 비반복적으로 노래한다는것을 말한다.

생활정서는 현실그대로의 구체성과 생동성, 진실성을 가진 사상미학적내용이다. 그러므로 시적인 사상은 직선적으로 론리화되거나 개념화되지 않으며 설명되거나 도해되지도 않고 스스로 느껴 받아안게 된다.

시에서의 생활정서는 시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나》, 시인의 개성을 거쳐 주정화되어 토로된것이다.

시에서는 여러 등장인물들과 그들사이의 이러저러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정적주인공인 《나》의 주정을 그린다.

그 서정적주인공인 《나》는 시인자신일수도 있고 그 어떤 제3자의 인물 혹은 집단일수도 있다.

서정시는 《나》라는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과 의지, 감정 등 내면적체험의 개별적상태를 직접 표현한다.

생활정서를 주정으로 표현하는 여기에 시형상의 특성이 있다.

시형상이 서정적주인공 《나》의 주정을 토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말은 직선적인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직선적이라는것과 직접적이라는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등장인물들이 작품에 설정되고 그들의 인간관계가 맺어지며 생활이 객관적으로 그려지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객관적인 묘사방식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작품의 사상과 미적정서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수 있다.

서정시에서는 객관적인 묘사방식으로가 아니라 주정적인 묘사방식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소설과 영화에 비하여 보다 직접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시작품의 사상과 미적정서가 직선적으로 도해되거나 설명되어서는 안된다.

시형상이 주관적인 형태를 취하여도 사상감정은 어디까지나 현실에서와 같은 산 체험의 생활정서 그대로의 모습으로 노래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에서의 주정적인 형상이 작품의 사상을 직선적으로 로출시키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그대로의 생활정서적인 모습으로 노래한다는것을 말한다.

결국 이것은 시형상이 사상주제적내용을 밝히는 생활적인것으로서 직선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형상적으로 쓴 명가사이다.

따뜻한 것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치너는 가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새들은 따뜻한 것을 찾아가는데 치너는 홀로 찬바람부는 길을 간다. 이 대조는 시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참된 삶에 관한 심각한 문제성을 생활적으로 극성이 느껴지게 하여준다.

이처럼 가사는 의의있고 절실한 사상주제적내용, 삶과 투쟁, 생활에 대한 진리를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따뜻한 것을 찾아가는 새들과 찬바람부는 길을 가는 치너라는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밝히고있다.

시형상은 생활정서적이며 주정적인것이기때문에 정서의 구체성, 비반복성, 진실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사상을 직선적으로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정서적으로 표현한다. 즉 사상을 생활속에 굴절시켜 보여준다.

시형상이 사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생활정서를 통하여 굴절시켜 표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비유적인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사상을 논리로써가 아니라 생활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한다는 의미에서 시형상은 비유적인것이다.

시에서 정서가 생활적인 깊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형상성이 높아지고 풍부해진다.

서정이 철학적깊이를 가지고 생활적이고 열도가 높으면 그로부터 사상과 정서를 낳은 생활정황과 행동이 뚜렷이 표상되며 사람들의 과거생활에서 겪은 체험까지 불러일으키는 련상작용도 커진다.

결국 언어밖의 언어, 시의 표면뒤에 겹쌓여있는것이 여운을 안겨주게 된다. 이것은 시

에서의 현실그대로의 구체성과 생동성, 진실성을 가진 생활정서적인 형상은 깊은 뜻을 체현한 비유적인 것이며 생활의 모습과 체험을 뚜렷이 불러일으키며 표상하게 하는 련상적인 것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시형상의 본질적속성은 다음으로 최대로 집약되고 함축된 간결한것이라는데 있다.

시형상이 집약되고 함축된 간결성을 자기의 고유한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것은 우선 시인이 자기가 체험한 생활감정가운데서 오직 정수적인것만을 담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시는 일반적으로 어느 문학형태보다도 그릇이 작다. 몇마디의 말과 문장, 몇개의 시행과 시련을 가지고 하나의 완결된 사상감정을 담는것이 시의 형태적특성의 하나이다.

서정시는 서정적인 《나》가 겪는 하나의 시적계기를 파고들어 시대정신이 강렬하게 느껴지게 시적일반화를 실현함으로써 큰 사상을 깊이있게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사상감정, 내면세계를 이러저러한 이야기와 다양한 생활정황속에서 객관적인 세부묘사로 그려나가는 소설이나 영화문학과 비교하여보면 그것을 쉽게 파악할수 있다.

시인은 소설이나 영화문학과는 달리 《나》라는 서정적주인공이(서정시에서) 체험하는 하나의 시적계기를 파고든다. 그리하여 생활정황과 인간의 행동세계를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그려보이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감정세계를 집약적으로 세부화하면서 주정을 발생시킨 정황과 생활을 많은 경우에 생략하고 극히 필요한 일부만을 제시한다.

하나의 계기를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전체를 보여주는데 시형상의 위력이 있다.

최대로 집약되고 함축된것으로 하여 시형상은 현재로부터 뒤에 깔려있는 과거를 보여주거나 느끼게 할수 있고 현재속에 움터나고있는 미래를 앞당겨 느끼게 할수 있게 하며 하나의 계기가 놓여있는 좌우의 생활을 폭넓고 풍부하게 그려낼수 있게 한다.

하나의 국면에서 겪는 현재의 순간이 기본이지만 그것에 이처럼 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가 비껴지게 하는것으로 하여 시형상은 련상작용과 여운이 어느 문학형태보다 큰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시가 비록 작고 간결한것이지만 시대와 사회를 표상하게 하며 시대정신을 집약적으로 느끼게 하는 큰 문학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서정시 《어머니》(김철)는 당이라는 위대한 어머니와 자기를 낳아준 한 시골아낙네와의 관계속에서 느끼는 극적으로 양양된 충격에서 받아안은 현재와 과거, 미래에 대한 《나》의 감정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이와 같이 시형상의 특성과 위력은 체험된 생활정서가운데서 정수적인것만을 작은 용적에 일반화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개성화하는 시적전형화에 의하여 담보된다.

시적일반화는 작은 형식을 전제로 하는 일반화이며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느낀것가운데서 정수적인것만을 주정적으로 노래하는 일반화인것만큼 최대의 집중과 집약, 함축과 생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간결성이 잘 보장되어야 한다.

시형상이 집약되고 함축된 간결성을 자기의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것은 또한 정수적인 생활정서를 표현하는 시어와 시문장의 특성 즉 집약성, 함축성, 운률성과 관련되어 있다.

집약되고 함축된 주정, 정수적인 서정은 최대로 양양되고 뜨겁게 불타는것이기때문에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을 정도로 끓으며 소리치며 춤추는 불동적인 힘을 가지고있다.

압축되고 뭉쳐넘치는 활동적인 힘으로 터져나와 줄기차게 흐르는 서정은 거기에 적합한 언어와 시문장을 요구한다. 시어와 시문장은 분석하는 언어, 전개하는 언어 또는 서술하고 설명하며 론증하는 문장으로 될수 없다. 최대한로 집약되고 생략되고 함축된 시어와 시문장만이 정수적인 생활정서에 부합되며 시형상의 간결성을 보장하게 된다.

시형상의 본질적속성은 다음으로 정서적인 흐름을 가진 활동적인것이라는데 있다.

시가 활동적인 성질을 고유한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것은 그것이 생활정서로 이루어지기때문이다.

시의 생활정서, 뜻깊고 인상깊은 서정자체가 흐름을 가진 활동적인것이다.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는 생활에서 감명을 주는것에 부닥치게 되면 느낌과 그에 대한 파동이 일어나게 된다. 강렬한 느낌으로서의 정서는 파동을 가지고있다.

생활정서가 활동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것은 시가 생활의 맥박과 흐름에 기초하고 그것을 반영하기때문이다. 동시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개성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감정 즉 심장의 느낌과 박동, 열정을 구현하기때문이다.

생활정서의 활동성적인 성질이 목적의식적으로 강조되는 시형상창조에서 활동성은 시인, 창작가의 능동적역할에 의하여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서 생활의 맥박과 흐름은 시인의 심장의 고동과 열정에 의하여 채색되고 시인의 열정과 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생활의 박동과 흐름이 시인의 개성적인 느낌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반영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시형상의 운율성은 생활속에서 받아안은 생활정서의 활동적인 흐름에 기초하게 된다.

시가 활동적인 성질을 고유한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것은 운율이 시를 시로 되게 하는 고유한 수단이기도 하기때문이다.

시 특히 서정시와 가사의 사명은 읊어지거나 노래되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사람은 솟구쳐오르는 양양된 생활정서를 체험하게 되면 자기의 흥분을 설명하는것으로써는 성차하지 않아 웨치거나 노래하며 춤을 추게 된다.

끓어오르는 감정의 활동적인 흐름이 언어로 표현될 때 운율적인 시로 되고 음으로 표현될 때 선율적인 노래로 되며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는 활동적인 춤으로 된다.

시인은 충격적으로 끓어오르는 생활정서를 서정시로 읊거나 가사로 노래하기 위하여 정서의 활동성, 음악성을 타고 언어로 운율을 조성한다.

그리하여 시형상은 고유한 운율을 가지게 되며 시는 사람들의 입에 올라 읊어지게 되고 노래되게 되는것이다.

시형상의 본질적속성을 잘 알고 인간과 생활을 시적인 형상으로, 정서적으로 반영하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시대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시형상의 본질적속성을 옹골게 살려 정서로 물들여진 시, 시대정신이 구현된 세련된 형상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